

쇼와53년5월선정 중요전통적건물군보존지구

나라이쥬쿠



나라이쥬쿠는 에도막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카센도우 67 쥬쿠의 제 34 쥬쿠에 해당한다. 나카센도우의 최대의 험난한 곳이라고 불리워졌던 토리이토우게(고개의 이름)를 넘어야 하는 경우, 이 고개를 넘어가는것을 대비해서 숙박하는 여행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라이센켄」이라고 불리워 질 만큼 당시의 변화함을 보여주고있다. 현재에도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한 건물이 거리 양쪽에 세워져있다. 나카센도우를 따라서 남북 약 1km, 동서 약 200m의 범위에 남북 양끝에 신사가 있다. 상점들이 늘어서있는 거리 뒤쪽 산기슭에는 5개의 사원이 자리잡고있고, 거리를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칸마치, 나카마치, 시모마치의 세개의 마을로 나누어져있다. 상가로와 주변의 환경을 보존 하는 목적으로 쇼와 53년 5월에 나라의 주요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선정되어있다.

여기 건축물의 대부분은 츄우니카이다테(건물의 정구 층의 도중에 마루를 마련해 만든 천정이 낮은 2층)로 되어있고, 낮은 윗층의 한쪽 벽을 베란다와 같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 베란단의 양쪽면에는 옆집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서 널빤지로 가려져있고 지붕은 깊음이 느껴지는 느슨한 형태로 되어있다. 지붕의 구조는 돌을 얹은 지붕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함석지붕으로 되어있다. 이층 정면에 소대카베(가리개, 방화, 방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로부터 외부로 튀어나오게 만든 폭이 좁은 벽)을 가지는 건물도있다.

Attractions



니하쿠지조우

삼나무 옆에 자리하고있는 **하치만신사** 앞에 우두커니 진열되어있는 석불상이 있습니다. 200 개가 넘는 석불의 소박하고 유복한 표정으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지조우

치쿠야마시키의 정원이 아름다운 **다이호우지**에 마리아 지장이있습니다. 묘지의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얼굴없는 그 모습에, 일본에 처음으로 전래 되었을 무렵의 천주교의 슬픈 역사가 새겨져있습니다.



미즈바

산에서 솟아나는 물이 모이는 샘터에는 여름에도 차운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도가 보급되어있는 현대에도 **나카센도우**를 오가는 행인들의 목을 축여주고,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 해 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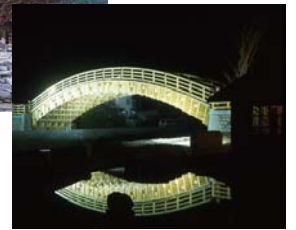
나카무라야시키

일본 에도시대 말기인 연호 8년에 만들어졌다. 만들어지기 전에 큰 화재가 있었다. 이 나카무라 저택은 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로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있다. 이 저택의 구조는 폭이 좁고 안에는 **다시바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나라이**의 여관가도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저택이다.



시즈메신사

그 옛날, **나라이**의 사람들은 역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시모우사 카토리 신사**에서 신령을 불러 병을 진정 시켰다고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나라이쥬쿠**의 남쪽 끝에 위치하는 **토리이토우게**를 오르는 입구에 있는 이 신사는, 도중에 안전 기원을 참배하는 사람도 많았다. 고 합니다.



키소의 대교

키소산의 수령 300년이상인 노송나무로 만든 이 대교는 일본에서 가장 긴 강(**나라이강**→**사이강**→**치쿠마강**→**신노우강**)의 위에 세워졌다. 4월에서 11 까지는 해가지면 조명을 비추어 줍니다.



키소히라사와

키소히라사와

전국에서 몇몇 되지않는 칠기 산지이며, 근세부터 근대에 걸쳐 다양한 시대의 건물이 혼재하고 있다. 현재도 산업으로서 칠기생산이 150 기업에서 약 700 명의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헤이세 18년 7월에 전통적 건축물 보존군 지구에 선정되었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입상 메달

칠의 전통적기법과 정밀 금속가공의 선단기술이 하나가 된 작품이며, **키소히라사와**의 직원들이 손수 정안, 제작을 했다. 한쪽 면은 올리브를 배합한 원형의 바깥 테두리안에 「아침 해」를 표현한 그림이 있고, **싯포우야키**로 완성한 엠블럼을 더하고 있다.

